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

2019.12.9(월) 09:40
마곡 LG사이언스파크 6층 비전홀

금융위원장 축사

2019. 12. 9.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2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LG화학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LG화학) 2차전지 공급망의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펀드 조성
(금융기관)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글로벌(중국, 미국 등) 시설투자자금 공급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주신
LG화학의 신학철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지원으로 응답해주신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님,

그리고 농협은행 이대훈 행장님과
수고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기업과 금융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애써주고 계시는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님,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님,
그리고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의 상근부회장님을 비롯한
산업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의 성과

내빈 여러분!

정부는 지난 8월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8.5일, 관계부처 합동)

그간 기업들의 R&D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시설투자·M&A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출범하였습니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해외 시설투자와,
기술 습득을 위한 M&A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위해
업계와 금융권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 업계(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기중앙회, 업종별 협회), 정책금융기관
(산은, 수은, 기은), 시중은행(농협은행) 및 글로벌 IB 등으로 구성

오늘 LG화학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은
협업체의 중요한 성과로,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결과로 보여줬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LG화학과 산업은행은
추후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2차 전지 공급망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 LG화학·산업은행 공동조성 펀드 예치 후 발생 이자를 통해 금리우대 제공

해외 시설투자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하게 되는 이번 사례는,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원 모델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Ⅲ.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금융위원회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금융권의 적극 동참 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약 20.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가동중입니다.

- * 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자금 등 지원(16조원)
- ② R&D 기업 대상 보증 프로그램 마련(1.5조원)
- ③ 해외 기업 M&A 인수·투자자금 지원(2.5조원 이상)

자본시장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지원방안*을 마련(9.9일)하여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망한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더욱 쉽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 * ①상장심사기간 단축(45→30영업일) ②소재·부품·장비 기술평가 전문기관 추가
- ③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 → 상장자격 부여(現 2개 기관 평가 필요)

아울러,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하여
소·부·장 기업들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 소재·부품·장비 펀드 조성을 위한 재정 출연금 2,000억원 '20년 예산안 반영

그동안 민간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내빈 여러분!

기업 간 다국적 인수합병과
해외 투자가 일상화된 글로벌 시장입니다.
기술의 이동은 더욱 신속하고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孫子は “전쟁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다시 이길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戰勝不復(전승불복), 應形無窮(응형무궁)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술개발 인내를 통한
전통적인 기술력 제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된 글로벌 기업 환경과
이동이 자유로운 “기술”의 속성을 적극 활용하면서
應形無窮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LG화학의 해외 투자 성공을 시작으로,
산업계의 적극적인 기업발굴과
금융권의 아낌없는 자금지원이 뭉쳐,
다양한 소·부·장 기업 승리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